

## Methylprednisolone 충격 요법을 시행한 스테로이드 저항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환아들의 임상경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이환석 · 추미애 · 홍은희 · 조민현 · 고철우

###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 against Steroid Resistant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in Children

Hwan Seok Lee, Mi Ae Chu, Eun Hui Hong, Min Hyun Cho, Cheol Woo Ko

Department of Pediatr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목적** : Methylprednisolone 충격 요법 (Mendoza protocol)을 시행 받은 스테로이드 저항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환아들의 임상경과를 알아보려고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경북대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여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시행한 신장조직 검사상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확인된 환아 12명을 대상으로 Methylprednisolone 충격 요법을 시행하여 그 임상경과를 추적 관찰하였다.

**결과** : 대상 환아 12명의 평균 연령은  $89 \pm 59$ 개월이었고 남녀비는 7:5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신증후군 진단 후부터 신장 조직검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개월이었고 신장조직검사 당시 평균 연령은  $105 \pm 57$ 개월이었다. Methylprednisolone 충격 요법은 평균  $23 \pm 5$ 회가 시행되었고 평균 치료기간은  $42 \pm 24$ 주였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Cyclophosphamide가 평균 9.8주 동안 투여되었다. 그 결과, 총 12명 중 Methylprednisolone 충격 요법을 시행하여 완전관해가 유도된 환아는 1명 이었고 부분적인 관해가 유도된 환아는 3명이었다. 나머지 8명은 관해가 유도되지 않았는데 이중 5명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 및 신장이식을 시행 받았으며 2명은 치료효과가 없어 Methylprednisolone 충격 요법을 23회까지만 시행하고 치료를 중단하였다. 총 6명에서는 감염이, 4명에서는 쿠싱양 외모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결론** : 스테로이드 저항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단된 환아의 약 3분의 1에서 Methylprednisolone 충격 요법에 반응하였다.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더 많은 환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